

# 목포시 예산, 사회복지 '과대' 해양수산 '홀대'

### 복지 비중 42.7%로 전남 최고... '40% 이하로 낮춰야' 주장

### 농림해양수산은 2.1%로 최저... 시의회 정책토론회 개최키로

목포시 본예산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남 22개 시·군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목포시 2019년도 본예산 현황에 따르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3154억1300만원으로 전체 예산 7388억6900만원 대비 42.7%를 차지했다.

전남 지역 타 시와의 비교에서도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여수시는 28.5%(3878억), 순천시 26.9%(3125억), 나주시 27.7%(1872억), 광양시 18.7%(1820억)로 나타났다. (이하 2019년 본예산 기준, 추경 미반영, 백만원단위 절사) 군 단위에서 사회복지 예산 반영률이 20%를 넘는 지자체는 담양군 24.2%, 고흥군 21.9%, 화순군 21.4%, 장성군 21.5%, 장흥군 21.7%, 해남군 21.0%, 영암군 22.2%, 무안군 21.8%, 영광군 23.3%, 함평군 20.3%, 완도군 21.0% 등 총 11곳으로 조사됐다.

특이하게도 목포시를 포함한 서남권 9개 시·군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정치적인 영향에 기인한 것 아니냐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이처럼 목포시의 사회복지 반영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도내 22개 시·군에서 최하위를 기록, 극명한 대조를 만든다.

목포시의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152억원(2.1%)에 그쳤다.

지역 내 타 시의 경우 여수시 4.5%(610억), 순천시 9.8%(1137억), 나주시 16.4%(1116억), 광양시 7.9%(768억)로 집계됐다. 일선 군 단위 반영률은 대부분

20%선이었으며 많은 곳은 30%선(강진, 보성, 장흥, 해남군)에 달했다.

사회복지 분야에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투자가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목포는 서남권 수산물 집산지로서 표면적으로는 전국 제1의 수산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해양수산 분야를 홀대하는 것으로 '예산 불균형 심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목포시는 이달 중 용역업체 사전심의 위원회와 지방보조금 및 자체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27일까지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자체심사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청 안팎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목포시의회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산 배정부터 집행까지 심도 있는 검토와 관리, 집행부 감시를 통한 재정 관리의 효율성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게 이 이유다.

지역 정가의 한 인사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민선시대 일방적인 복지공약 이행과 물량 위주 복지사업에 치중한 탓"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복지는 한번 사용하게 되면 들이킬 수 없는 세출항목으로 꼽힌다. 시민들에게 주었다가 빼앗기란 사실상 매우 힘들기 때문"이라며 "복지현안에 대해서는 정치권을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이 중지를 모아 자원배분의 합리성을 높이고, 복지에 들어가는 의무지출을 줄여 재정부담을 덜어야 한다. 수립단계에서부터 40%대 이하로 낮추는 뼈를 깎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 전남 22개 시·군 예산 비중 (단위: %)

현황 시군	사회복지	농림 해양수산	문화관광
목포시	42.7	2.1	6.6
여수시	28.5	4.5	5.0
순천시	26.9	9.8	5.9
나주시	27.5	16.4	4.7
광양시	18.7	7.9	5.6
담양군	24.2	18.1	9.3
곡성군	17.4	18.6	6.8
구례군	18.9	16.6	10.4
고흥군	21.9	22.2	4.8
보성군	19.1	28.9	5.2
화순군	21.4	15.0	3.7
장흥군	21.7	28.1	4.7
강진군	19.7	30.1	8.5
해남군	21.0	28.2	5.7
영암군	22.2	20.9	5.0
무안군	21.8	18.6	4.7
함평군	20.3	25.2	5.5
영광군	23.3	20.3	5.9
장성군	21.5	19.0	6.0
완도군	21.0	18.0	6.2
진도군	17.9	26.7	5.4
신안군	16.8	21.9	3.3

다"고 조언했다.

목포 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한 의원은 "사회복지예산이 인건비와 운영비 편중이 심각하다. 최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유치 논쟁도 연간 5억에 달하는 운영비가 결국 복지예산 비율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벗어선 현상"이라며 보다 구체적이고 풍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휴환 목포시의회 의장은 "아무리 그럴싸한 복지시책이라도 재정 건전성 없이는 지속불가능하다. 재정 상태를 시민에게 솔직히 알리고 복지 포괄리즘은 경계해야 한다"면서 "현행 복지예산 분류와 편성, 지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향을 찾는 정책토론회를 조만간 열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시 본예산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42%를 차지해 도내 22개 시·군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반영비율을 4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랑의 밥차 봉사 모습. <목포시 제공>

## 목포시 경제 활성화 목적 예비비 28억 확보

### 세라믹부품소재기업 지원 등

목포시가 고용·산업위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 예비비 28억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된 목적예비비는 ▲목포 세라믹부품소재기업 사업화 지원 10억원 ▲평화광장 구조개선 8억6000만원 ▲용해2 지구-백련펄프장 하수관로 정비 5억원 ▲상동-이로동 합류식 하수관 정비 3억 5000만원 ▲목포 사범학교 분관 시설물 개선사업 1억원 등이다.

세라믹부품소재기업 사업화 지원은 첨단세라믹의 소재·부품 국산화와 제조혁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부가 성장 동력산업 육성이 기대된다.

또 평화광장 구조개선 사업은 서남권 최대 도심 속 친수공간인 평화광장 공간을 재창조,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한편 목포는 조선 산업 침체로 인해 2018년 5월 고용·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지난 5월 위기지역 지정이 2년 연장됐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 목포 "문화재 야행" 문화재청 공모사업 3년 연속 선정 쾌거

목포시의 근대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대표 프로그램인 '문화재 야행(夜行)'이 3년 연속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목포시는 최근 '문화재 야행'과 '생생 문화재사업' 2건 등 3건이 2020년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문화재 야행'은 지역의 특색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문화재 야간관람과 공연·체험·전시 등으로 구성된 야간 문화향유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8년 첫 선을 보인 이후 3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그 동안 가을에 개최하고 있는 문화재 야행은 내년에는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또 '생생 문화재사업'은 잠자고 있는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콘텐츠화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된 사업이다.

이동형 거리극인 '육단이 잔치집으로 마실기다'는 4년 연속 선정됐으며, '목포개항장 시간여행'은 2년 연속 선정됐다.

내년 4월부터 11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목포 원도심 근대역사문화거리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이승만 목포시 도시문화재과장은 "목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가진 매력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 목포해상케이블카 불편 해소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 바가지요금·불친절 잇단 민원 시, 합동회의 열고 대책 마련

목포해상케이블카 개통으로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바가지요금·불친절 등 민원이 잇따라 목포시가 관련 기관·단체와 머리를 맞댄다.

목포시는 "24일 시장 주재로 '해상케이블카 개통 관련 기관·단체 간담회'를 갖고, 이어 부시장이 주재하는 '해상케이블카 운영 관련 민·관 합동회의'를 잇따라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기관·단체 간담회에는 요식업중앙회 목포시 지구장과 임원 13명을 비롯해 북항권 3개 상인단체 대표 및 임원 9명, 법인택시 대표협의회장 및 개인택시지부장

2명, (주)목포해상케이블카 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요식업 조합과 북항권 상인단체는 친절 서비스 및 바가지요금 등에 대한 대처방안 발표 후 토의를 거쳐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법인택시협회와 개인택시 지부는 택시의 친절서비스 향상과 함께 교통법규 준수대책을 마련한다.

(주)목포해상케이블카 측은 해상케이블카 안전에 대한 우려 해소방안과 서비스 개선방안 등을 발표한다.

목포시에서는 ▲위생업소 지도단속 대책(보건위생과) ▲옴트맛집 육성 관련 대책(관광과) ▲택시 등 대중교통 지도단속 대책(교통행정과) 등 관련 부서별 대책을 보고한다.

이어 부시장 주재로 열리는 '해상케이블카 운영 관련 민·관 합동회의'에서는 그동안 발생한 민원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지금까지 제기된 민원을 살펴보면 이용객 급증으로 인한 대기시간 증가에 따른 불만이 가장 많다.

또 검표와 탑승안내원의 운영 미숙과 불친절,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일시정지 상황 발생에 따른 불안, 주차장 운영(요금체계) 등이다.

이와 관련 김신남 목포시 부시장은 "민·관 합동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며 "사측과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시와 사측의 합동모니터링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 배움의 향기 가득... 다음달 3~6일 목포시 평생학습 발표회

### 복놀이·난타 등 15개 팀 참가 성인문해작품 75점도 전시

1만여 평생학습인들이 축제인 '2019 평생학습 발표회'가 다음 달 3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항구축제 기간 중에 삼학도 무대에서 펼쳐진다.

목포시는 "지역사회 평생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최소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거두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몰리는 항구축제를 이용해 이번 발표회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다음달 5일 열리는 발표회에는 10개 행정복지센터 동아리와 5개 평생학습 교육기관 등 모두 15개 팀이 참가해 그동안 갖고 뒤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된다. 종목별로는 에어로빅 1팀, 민요 복놀이 2팀, 연주 7팀, 퓨전난타·사물놀이 4팀, 기공제조 1팀이 참가해 자유를 겨룬다.

특히 항구축제 기간 동안 열리는 평생학습 홍보 부스에는 캘리그래피·야생화 자수·원에 치료 화분·민화 등 54점이, 성인 문해 부스에는 시(詩)와 일기 등 총 75점의



목포시 지역 1만여 평생학습인들의 축제인 2019 평생학습 발표회가 다음달 5일 삼학도 무대에서 펼쳐진다. 이번 발표회에는 난타, 연주 등 총 15개 팀이 참가해 연인 경연을 펼친다. 지난해 발표회 모습.

작품이 전시된다.

김오심 목포시 평생교육팀장은 "평생학습인들의 배움을 향한 열정과 그 향기를 만끽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평생

학습으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학습인들이 함께하고 소통하는 교류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www.seogwangju.nonghyup.com

# 따뜻한 나눔, 행복한 동행

조합원님의 삶의 질 향상과  
따뜻한 마음으로 고객님과 함께 성장하고  
신뢰받는 **서광주농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광주농업협동조합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 운암박산지점 062)529-5335~6
-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 버들지점 062)381-1971~2
- 동림지점 062)513-8521~3
- 치평지점 062)381-8212~3
- 쌍춘지점 062)381-6551~2
- 동문지점 062)528-2640~2
- 농성지점 062)361-4472~4
- 용산지점 062)526-0222~3
- 유덕지점 062)373-3235~6
-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 유동지점 062)512-1984~5
- 상무동지점 062)372-3741~2
- 운암지점 062)527-3295~6
- 화정지점 062)372-0421~3
- 운천지점 062)371-2772~3
-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 로컬푸드직매장 062)364-8400